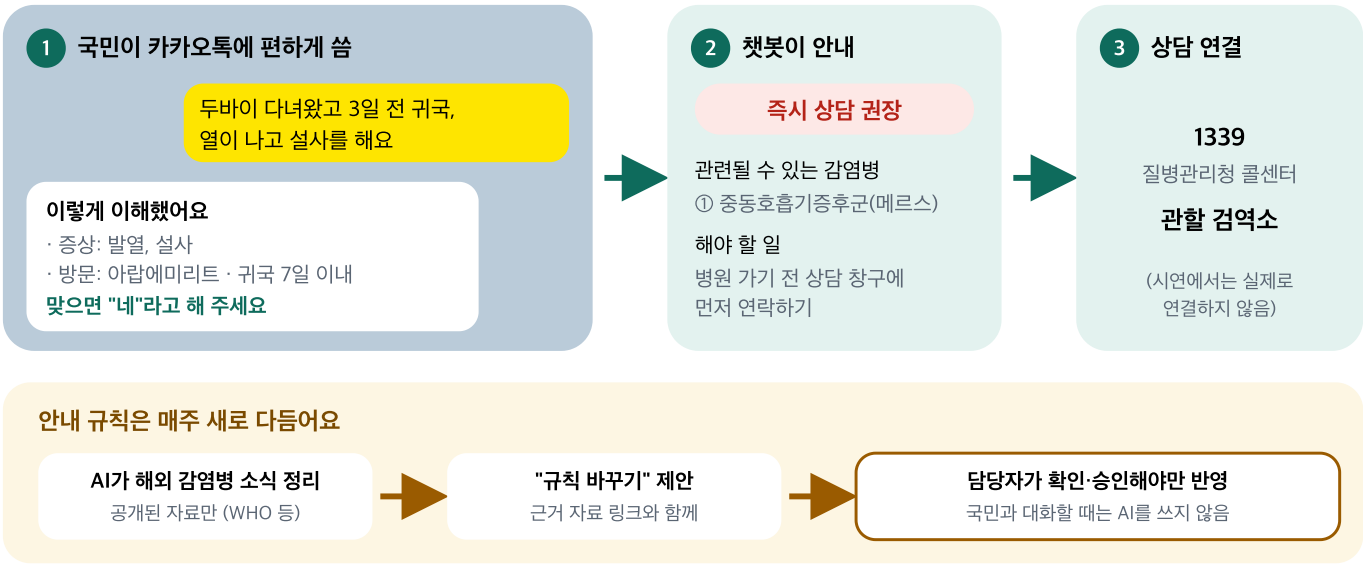
동료와 함께 보는 쉬운 설명

시연용

해외 다녀와서 아플 때,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는 챗봇

증상과 다녀온 나라를 카카오톡에 편하게 쓰면, 관련 검역감염병과 해야 할 일을 알려 주고 상담 창구로 안내하는 모습을 시연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

이렇게 동작해요



안내 규칙은 매주 새로 다듬어요

AI가 해외 감염병 소식 정리 (공개된 자료만 (WHO 등)) → "규칙 바꾸기" 제안 (근거 자료 링크와 함께) → 담당자가 확인·승인해야만 반영 (국민과 대화할 때는 AI를 쓰지 않음)

이런 점이 좋아요

- **앱 설치 없이** 이미 쓰는 카카오톡으로 바로 이용
- 버튼을 고를 필요 없이 **말하듯 한 문장**으로 입력
- **이름·연락처를 받지 않고** 증상과 다녀온 나라만 확인
- 해외 유행이 바뀌면 **담당자 승인**을 거쳐 안내도 바뀜

시연용이라 알아 둘 점

- **의료 진단이 아니라** 검역 안내용 참고 정보입니다
- 안내 규칙과 이용 기록은 **시연용 예시**입니다
- 빠르게 보여 드리려고 **일반 클라우드 서비스**에 올렸습니다
- 실제로 쓴다면 기관 기준에 맞춰 **바꿀 수 있습니다**

IT·보안 담당자께 여쭤볼 것 (3가지)

1. **카카오톡 채널로 국민 안내 서비스를 작게 시범 운영해 보려면 어떤 절차나 승인이 필요한가요?**
   예: 보안성 검토, 대외 채널 개설 승인 등 필요한 단계와 대략적인 기간
2. **이름·연락처 없이 증상과 다녀온 나라만 받을 때, 개인정보 측면에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나요?**
   예: 안내·동의 문구, 보관 기간
3. **공개된 해외 감염병 소식을 정리하는 데 외부 AI 서비스를 써도 되나요?**
   담당자 승인 후에만 반영하는 방식일 때 기관 지침상 조건이 있는지

카카오톡 채널: http://pf.kakao.com/_SYtWX — 더 자세한 기술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 "시스템 구성 및 보안 검토 질의서"를 드릴 수 있습니다.

기능 시연용 프로토타입이며 실제 서비스가 아닙니다. 모든 데이터는 가상이며, 질병관리청·국립검역소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. · 2026-11-02